

# 강원 지역 고구려 성곽의 존재 가능성 검토\*\*\*

양시은\*\*\*

- 
- I. 머리말
  - II. 고구려의 강원 지역 진출
  - III. 남한 지역 고구려 성곽의 현황과 특징
    - 1. 분포 현황
    - 2. 성벽의 구조적 특징
  - IV. 강원 지역 고구려 유적과 성곽의 존재 가능성
  - V. 맺음말
- 

## 【국문초록】

이 논문은 고구려의 강원 지역 진출과 그에 따른 고구려 성곽의 존재 가능성을 검토한 것이다. 고구려는 광개토왕 대인 4세기 말에 백제를 공격하여 58성 700촌을 획득하였으며, 400년에는 경주에 5만의 군대를 내려보내 위기에 처한 신라를 구원하였다. 그 과정에서 고구려는 북한강 유역까지 진출하였으며, 5세기 중반 장수왕 대에는 남한강 유역까지 그 세력을 확장하였다. 이는 춘천, 홍천, 원주 등지에 분포한 고구려 석실분과 생활유적, 그리고 충주고구려비 및 충주 일원의 석실분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현재 강원 지역에는 100여 개소의 성곽이 분포하고 있으나, 발굴조사를 통해 축성 주체가 밝혀진 사례는 매우 드물다. 그럼에도 『삼국사기』 지리지에는 고구려 군현이 존재했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어 고구려 성곽이 존재할 가능성은 충분하다. 이들 성곽 중에서 한탄강 유역의 철원 성모루토성은 그 입지와 성벽 구조 등에서 고구려 성곽일 가능성이 가장 높다.

남한 지역 고구려 성곽의 분포 양상과 구조적 특징, 그리고 역사적 정황을 감안할 때 강원 지역에서 고구려 성곽이 다수 발견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 그럼에도 향후 지속적인 관심과 체계적인 발굴조사를 통해 그 실체를 규명해 나가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

---

\* 이 논문은 2021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21S1A5A2A03062185)

\*\* 본 논문은 2025년 5월 16일에 개최한 제15회 강원학포럼 『강원의 고구려 산성, 그 가능성을 보다』에서 발표한 글을 수정 보완한 것이다.

\*\*\* 충북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 교수

주제어 : 고구려, 성곽, 산성, 강원도, 성모루토성

## I. 머리말

문헌에 따르면, 고구려는 일찍부터 성(城)을 쌓았다. 그런데 고대 중국의 중원 왕조를 비롯한 주변 세력들이 평지성을 주로 축조하였던 것과는 달리 고구려는 산성을 중심으로 하는 방어체계를 갖추었다. 군사 방어를 위해 구축된 대부분의 산성은 도성으로 향하는 주요 교통로를 통제할 수 있는 전략적 요충지에 자리하였다. 이른 시기 고구려 산성은 접근이 쉽지 않은 산 정상부에 조성되었는데, 자연 절벽을 성벽으로 삼아 별다른 방어시설이 없어도 적을 막아내기가 용이하였다. 영토가 확장된 고구려 중기 이후에는 기존의 산정식산성 외에도 중대형의 포곡식산성이 많이 축조되었다. 계곡을 끼고 있어 수원이 풍부하여 많은 병사가 장기간 주둔하며 방어할 수 있는 포곡식산성은 석성뿐만 아니라 토성도 다수 확인된다. 고구려의 산성은 성벽이 견고하였을 뿐만 아니라 산을 의지하고 있어 함락이 쉽지 않았으며,<sup>1)</sup> 주변의 성과 연계한 방어체계가 잘 갖추어져 있어 수·당과의 전쟁에서도 큰 효과를 발휘하였다.

지금까지 보고된 고구려 성은 250여 개소로, 중국 동북지역과 북한 전역, 그리고 남한 일부 지역에 분포한다(삽도 1). 중국에는 최소 150개가 넘는 고구려 성이 분포하며, 둘레가 1km 넘는 중형급 이상의 산성이 상당수를 차지한다. 북한 지역은 정보의 부족으로 전체 숫자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지만, 지금까지 50여 개소가 알려져 있다. 다만 후대에도 지속적으로 사용되면서 개축된 경우가 대다수여서 연구에 어려움이 있다. 남한 지역에도 50여 개소가 분포하고 있는데, 둘레가 300m 미만인 소규모의 보루<sup>2)</sup>가 대부분이다(양시은, 2013, 16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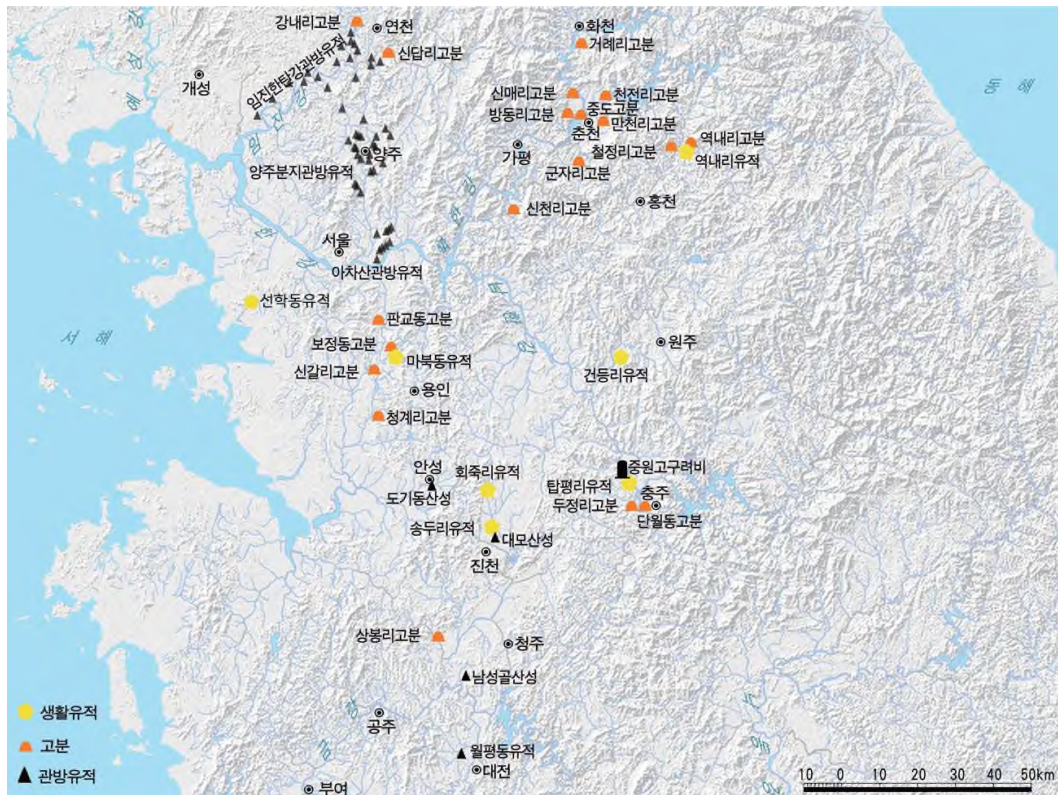
고구려가 남한에 진출한 것은 4세기 말로 「광개토왕릉비」에는 396년에 광개토왕이 아리수(한강)를 건너 백제 아신왕의 항복을 받아내었는데, 그 과정에서 백제의 58성 700촌을 획득하였다고 한다. 또한 400년에는 고구려의 기병과 보병 5만을 신라성(경주)으로 내려보내 왜의 침략을 받은 신라를 구원하기도 했다. 이후 고구려는 신라의 영토 내에 고구려 군대를 주둔시켰으며, 왕위 계승까지 간섭하는 등 신라의 국정에도 깊숙하게 개입하였다. 장수왕대 신라 매금(왕)의 복속의례를 상세히 기술하고 있는 「충주고구려비」 역시 이러한 상황을 잘 보여준

1) 647년 당 태종이 신하들과 고구려 원정을 논할 당시 ‘고구려는 산에 의지하여 성을 쌓아 당장에 함락시키기가 불가능하다(高麗依山爲城, 攻之不可猝拔)’는 언급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資治通鑑』 卷一百九十八 唐紀十四 太宗文武大聖大廣孝皇帝 貞觀二十一年).  
2) 고구려 산성은 둘레 1km 이하는 소형, 1~3km는 중형, 3km 이상은 대형으로, 0.4km 이하의 초소형 산성은 보루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입지에 따라 산정식과 포곡식으로 나누어볼 수 있는데, 보루를 포함한 산정식산성은 성벽 전체 둘레의 평균값이 0.4km인 반면, 포곡식산성은 3.11km로 그 차이가 매우 크다.

다. 고구려는 427년에 국내성(집안)에서 평양으로 도성을 옮겼는데, 475년에는 장수왕이 3만의 군대로 백제의 한성(서울)을 함락시키기에 이르렀다. 고구려는 이후 금강 이북 지역까지 진출하면서 웅진(공주)을 수도로 삼은 백제에게 압박을 가하였다.

이로 인해 남한 지역에는 성곽, 고분, 생활유적, 비석, 불교유적 등과 같은 여러 고구려 유적이 분포하고 있다. 각 유적의 분포는 고구려의 영토 확장 및 지배 양상과도 긴밀하게 맞물려 있는 것으로 이해되는데, 지역에 따라 서로 다른 양상이 확인된다.

앞서 언급한 남한 지역의 고구려 성은 중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분포하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임진강~한탄강 유역, 양주 분지, 한강 유역(아차산보루군)에 다수가 확인되며, 한강 이남 지역에는 안성 도기동산성 및 금강 북안의 세종(청원) 남성골산성과 대전 월평동산성 등 소수의 성곽만이 확인된다. 강원도의 경우에는 춘천, 홍천, 원주 등과 같이 주로 영서 지역을 중심으로 고구려 석실분과 수혈 유구 등이 확인되었으나, 고구려 성곽은 발견되지 않고 있다. 이에 본 고에서는 남한 지역 고구려 성곽의 분포 양상과 그 특징 검토를 통해 강원 지역에서의 고구려 성곽의 존재 가능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림 1] 남한 지역 고구려 유적의 분포 현황(©최종택, 일부 수정)

## II. 고구려의 강원 지역 진출

고구려는 광개토왕 대에 북한강 유역으로 진출하였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광개토왕릉비」에 따르면, 영락 6년인 병신년(396)에 왕이 몸소 군사를 이끌고 백제를 토벌하였다. 당시 고구려 군대는 백제의 영팔성(寧八城)을 비롯한 다수의 성을 공취(攻取)하였는데, 아신왕은 남녀 1천 명, 세포(細布) 1천 필을 바치면서 성을 포위한 광개토왕에게 무릎을 꿇고 스스로 이제부터 영원히 노객(奴客)이 되겠다고 맹세하였다. 이에 광개토왕은 58성 700촌을 얻고 백제왕의 아우와 대신 10인을 데리고 군사를 돌려 도성(국내성)으로 귀환하였다.

광개토왕이 백제로부터 공취하였다는 58성의 위치 비정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지만, 임진강 남안의 파주 육계토성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육계토성은 마한~한성백제의 토성으로, 최근 토루 판축층 내에서 채집한 목탄에 대한 방사성탄소연대 측정값이 3세기 후반에서 4세기 전반으로 밝혀졌다(국립문화재연구원, 2022). 성 내의 장방형 및凸자형 수혈주거지에서도 경질 무문토기와 직구단경호, 고배, 광구단경호 등 3세기 중엽에서 4세기 중후엽에 해당하는 토기가 출토되었다(정수옥, 2023).

1996년 한양대학교박물관이 조사한 육계토성 내부의 1호와 2호 주거지(주월리유적)에서는 앞서 언급한 유물 외에도 사이장경옹, 양이부호, 호를 비롯한 고구려 토기가 함께 출토된 바 있다. 특히 2호 주거지에서 발견된 어깨에 중호문이 음각된 호는 기형이나 문양 요소가 안악 3호분 출토 호와 거의 유사하다. 또한 사이장경옹 역시 몽촌토성 출토품에 비해 경부가 발달하지 않은 형태여서 연대가 상대적으로 이른다. 이들 토기는 안악 3호분의 조성연대인 357년을 상한으로, 대체로 4세기 후반에서 5세기 전반으로 추정된다(양시은, 2014, 74쪽).



[그림 2] 파주 육계토성 출토 고구려 토기 및 비교 자료

그런데 육계토성에서는 고구려 토기의 출현 이후로 5세기대로 편년되는 백제 토기는 발견되지 않고 있어, 4세기 말에 광개토왕이 백제를 공략하였던 역사적 사건을 규명하는데 중요한 단서가 된다. 한성 2기 양식의 백제 토기가 육계토성은 물론이고 주변의 임진강과 한탄강

유역에서도 발견되지 않는 것을 볼 때, 5세기부터는 고구려가 임진강 유역을 장악하고 있었음을 짐작해 볼 수 있다(양시은, 2023, 35쪽).

그런데 고구려가 차지한 백제의 58성이 예성강-임진강 유역과 한강 하류-서해안 일대에 모두 위치했다고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이들 58성 중에는 「충주고구려비」에도 기재된 ‘고모루성(古牟婁城)’이 포함되어 있는데, 해당 성을 북한강 상류에 위치한 것으로 보는 견해도 존재한다(서영일, 2006, 54-56쪽). 그리고 「충주고구려비」에는 ‘고모루성 수사(守事)’라는 지방관의 명칭도 등장하고 있어, 이 지역에 고구려가 지방관을 파견하였음을 짐작해 볼 수 있다.

만약 당시의 58성을 일정 영역을 포괄하던 지역단위로 본다면, 그 범위는 통일신라기의 군현과 비슷했을 가능성이 있다(임기환, 2002, 3-6쪽). 이에 『삼국사기』 지리지에 고구려 남쪽 영토 내에 설치하였다는 통일신라시대 한주(漢州)와 삭주(朔州)의 군현이 상당 부분 포함되었을 수도 있다. 즉, 5세기 초엽 고구려와 백제 양국의 국경은 서해안 방향에서는 임진강-한강 분수령 지대에서 형성되었고, 영서 지역에서는 고구려가 북한강 수계까지 남진하였던 것으로 여겨진다(여호규, 2012, 208쪽).

한편, 『삼국사기』 신라본기 눌지마립간 34년(450)에는 ‘고구려의 변방 장수가 실직(悉直)의 들판에서 사냥을 하였는데, 하슬라성(何瑟羅城)의 성주 삼직(三直)이 군사를 내어 갑자기 공격하여 그를 죽였다’는 기사가, 자비마립간 11년(468)에는 ‘고구려가 말갈과 더불어 북쪽 변경의 실직성(悉直城)을 습격하였다’는 기사가 전한다. 하슬라는 지금의 강릉, 실직은 강릉보다 남쪽인 삼척으로 지정된다. 5세기 중반경 신라가 북쪽의 하슬라(강릉) 지역을 장악한 상태에서 고구려가 실직(삼척) 일대에서 사냥을 하였다는 것은 고구려 군대가 동해안을 따라 남하한 것이 아니라 영서 지역에서 백두대간을 넘어 삼척으로 이동하였음을 보여준다. 이는 450년경 고구려가 북한강 수계를 넘어 남한강 수계로 진출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다.

다만 남한강 유역에는 원주 법천리 석실분이나 충주의 탑평리유적, 장미산성, 그리고 최근 보고된 황새머리고분군 등과 같이 5세기 전반의 한성기 백제 유적이 분포하고 있다. 이를 고려하면 당시 고구려는 북한강 수계의 춘천-홍천을 거점으로 삼아 황성-평창-영월-정선 등 남한강 상류 방면으로 진출하였을 가능성이 있다(여호규, 2012, 206-207쪽).

게다가 건립 시기에 대한 논란은 있지만 「충주고구려비」에는 장수왕 대에 고구려가 죽령 남쪽 소백산맥 너머의 경북 영주 순흥으로 지정되는 ‘우벌성(于伐城)’ 일대에서 ‘신라토 내당주(新羅土內幢主)’로 불리는 신라 현지에 주둔하던 고구려 군사지휘관 등을 통해 사람을 모집하고 있음이 확인된다(여호규, 2020a, 136쪽). 이를 통해 광개토왕 대에 북한강 유역에 진출한 고구려가 5세기 후반이 되면 남한강 유역을 완전히 장악하고 경북 지역까지 그 영향력을 행사하였음을 짐작해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475년 장수왕은 백제의 한성을 점령하고 개로왕을 참수하였다. 이후 고구려 군대가 금강 북안(대전, 청원-세종)까지 진출하였음은 고고 자료를 통해 입증되고 있다.

한편, 『삼국사기』 열전 거칠부조에는 551년 나제연합군이 북상하여 한강 유역을 점령할 당

시 신라는 죽령(竹嶺) 바깥, 고현(高峴) 이내의 10군(郡)을 차지하였다고 전한다. 신라가 차지하였다는 10군은 고구려가 그동안 지배하여 왔던 계림령과 죽령 이서 지역의 충북과 강원 춘천을 비롯한 영서 지역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처럼 강원 영서 지역은 5세기 초부터 6세기 중반까지 고구려가 장악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 이는 춘천과 홍천 등지에 분포하고 있는 고구려 유적의 존재를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특히 춘천 지역에는 다수의 고구려 석실분이 분포하고 있어 이 지역이 일찍부터 고구려의 영역으로 편입되어 오랜 기간 안정적으로 지배되었음을 보여준다.

[표 1] 영서 지역 고구려 고분 현황(최종택, 2011, 142~144쪽 부분 발췌 및 일부 수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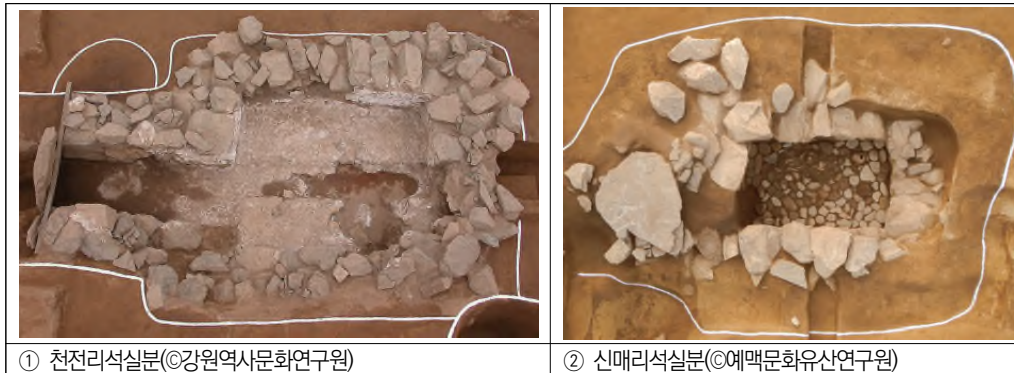
지역	유적명	입지	석실위치	축조재료	천정기구	장축비 (길이/폭)	연도	관대
화천	거리리고분	총적대지	반지하식	할석		1.16	우편재	
춘천	신매리고분	구릉말단	지상식	할석+회	삼각고임	1.34	우편재	좌측
춘천	천전리고분	총적대지	반지하식	할석+회		1.27	우치중	양측
춘천	방동리1호분	구릉말단	지상식	할석+회	삼각고임	1.40	우편재	혜손
춘천	방동리2호분	구릉말단	지상식	할석+회	삼각고임	1.62	우편재	좌측
춘천	만천리1호분	구릉말단	지상식	할석+회		1.45	우편재	혜손
춘천	만천리2호분	구릉말단	지상식	할석		1.24	우편재	좌측
춘천	군자리고분	구릉말단	지상식	할석+회	삼각고임	1.26	우편재	좌측
홍천	역내리1호분	구릉말단		할석	삼각고임	1.41	우편재	좌측
홍천	철정리2호분	총적대지	반지하식	할석		1.30	우편재	좌측
홍천	철정리3호분	총적대지	반지하식	할석		1.51	우편재	좌측
홍천	철정리4호분	총적대지	반지하식	할석+판석		1.24	우편재	
가평	신천리1호분	구릉말단	반지하식	할석		1.50	우편재	좌측
가평	신천리2호분	구릉말단	반지하식	할석		1.25	우편재	

화천 거리리고분<sup>3)</sup>, 홍천 철정리고분, 춘천 천전리고분 및 중도고분 등은 강가의 총적대지에, 나머지 춘천 신매리고분, 방동리고분, 만천리고분, 군자리고분, 역내리고분<sup>4)</sup> 등은 경사가 완만한 구릉 사면에 석실분이 조영되었다. 이들 고분은 단독 또는 2~3기만 분포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혜손으로 인해 원형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고 유물 역시 거의 남아있지 않다. 고

3) 강현숙(2022, 82쪽)은 남한 지역 고구려 고분 중에서 방형 현실과 방두형 관정의 출토 사례가 드물고, 현실 바닥에 두 차례 돌을 깐 흔적이 있다는 점에서 백제 석실을 고구려가 재사용한 것일 가능성을 상정한 바 있다.

4) 강현숙(2022, 83쪽)은 역내리 2호분과 3호분의 경우 1호분과 비슷한 구조라는 점에서 고구려 석실을 통일기에 신라가 재사용하였을 가능성을 상정하기도 하였다.

분의 기본 구조는 석실에 방대형 분구로 추정되는데, 신매리석실분과 천전리석실분은 봉토분 구 주위에 도랑이 돌아가는 주구봉토분이고 방동리2호분은 기단봉토분이다. 석실의 천정구조는 남아있는 경우 삼각고임이다. 그리고 장방형 평면의 현실에 우편재 연도를 기본으로 한다. 석실의 바닥은 전면 또는 일부에 불을 놓아 다짐하였거나 할석을 깔아 묘실의 좌측에 시상대(관대)를 마련하였다. 이 밖에도 춘천 신매리고분, 천전리고분, 방동리고분 등에서는 회로 마감한 흔적도 확인되었다.



[그림 3] 춘천 지역의 고구려 석실분

이들 고구려 고분 중 장축비(길이/폭)가 1.6 이상인 세장방형 묘실의 횡혈식석실분은 5세기 중엽경 북한강 상류와 남하강 수계를 이용한 중원 지역 진출 및 영역화와 관련된 고고학적 증거로 이해되며, 장방형 묘실의 횡혈식석실분은 475년 한성공함 이후 점령지에 대한 영역화를 시도했던 상황을 보여주는 증거로 이해되고 있다(최종택, 2011, 170쪽).

한편, 북한강 유역의 고구려 석실분 중에는 전형적인 고구려 석실봉토분 외에도 신매리와 천전리 석실분처럼 북한강 유역 선행 묘제의 영향을 받아 주구(周溝)가 확인되기도 하고, 거례리 석실분처럼 백제 한성기 석실의 특징을 공유하기도 하며, 역내리 고분군처럼 신라 통일기 이후의 토기가 부장되는 고구려 석실도 존재하는 등의 특징이 관찰된다. 북한강 유역은 고구려가 남한강 유역으로 나아가는 주요 길목이고, 또 일부 지역은 백제 한성기의 세력권에 속해있었던 곳이라는 점에서 영서 지역의 고구려 고분에서 발견되는 이러한 복합적인 양상은 고구려의 남방 진출과 퇴각 등의 역사적 상황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강현숙, 2022, 84-85쪽).

영서 지역에서는 이러한 고구려 석실분 외에도 홍천 역내리 4호 주거지나 철정리유적의 구상유구 등에서 고구려 토기가 출토되었지만, 고구려 취락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영동 지역에서도 고구려 유물이 수습되어 고구려의 동해안 진출과 관련하여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된다. 양양 포월리 3호 석실분에서는 금동판에 인동무늬가 투조된 금동 관고리 7점이 출토되었으며, 강릉 읍성의 서벽 추정지점의 퇴적층에서는 6세기 전반경으로 편년되는 복합

연화문 계통의 수막새 2점이 출토되었다.<sup>5)</sup>

이처럼 강원도에서는 주로 영서 지역을 중심으로 고구려 유적과 유물이 확인되고 있다. 그럼에도 고구려 성곽 유적은 아직까지 발견된 사례가 없어 논란이 되고 있다. 이하에서는 강원 지역에서 고구려 성곽의 존재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우선 남한 지역 고구려 성곽의 현황과 특징을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다.

### Ⅲ. 남한 지역 고구려 성곽의 현황과 특징

#### 1. 분포 현황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남한 지역에는 50여 개소의 고구려 성곽이 분포하고 있는데, 그 중 20개소 이상이 발굴조사 되었다. 이들 고구려 성곽은 한탄강·임진강 유역에 분포하는 3개의 강안평지성(은대리성, 당포성, 호로그루)과 안성 도기동산성, 청원(세종) 남성골산성과 같은 목책성을 제외하면 모두 둘레가 200~300m인 보루가 대부분이다. 성곽의 분포 양상은 제한적인데, 한탄강·임진강 유역, 양주 분지 일원, 한강 하류역의 아차산 일원에 집중되어 있으며, 안성천 유역과 금강 유역에서도 확인된다.

이들 성곽의 분포 양상에서 가장 특징적인 점은 북상하는 백제와 신라의 병력을 막기 위해 강의 북쪽에 성이 축조되어 있다는 것이다. 강의 남쪽에 위치한 일부 성은 고구려가 직접 축조한 것이 아니라 영토 확장 과정에서 백제나 신라의 성을 일시적으로 점유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표 2] 발굴조사 된 남한 지역의 고구려 성곽 현황

지역	유적명	구분	규모 m	성벽	내용
연천	전곡리목책	미상		목책	한탄강유역 / 목책+건물지 / 시굴조사 결과 토성은 존재하지 않았음을 확인
연천	은대리성	강안 평지성	1,06 9	석축 부가	한탄강유역 / 토루에 석축 덧붙인 구조 / 내성+외성 구조 불확실 / 타날흔 있는 5세기대 양이부호 등 출토
연천	호로그루	강안 평지성	401	목책 / 석축	임진강유역 / 선 목책, 후 토심석축(수직기둥홈) / 우물, 집수시설, 지하식 벽체건물지 등 / 연화문외당,치미,착고, 相鼓명 토제북, 벼루, 호자 등 / 탄화곡물(쌀,조 등), 동물뼈(소,말,개,멧돼지,사슴 등) / 행정관청

5) 집안 및 평양 지역에서 출토되는 고구려 수막새에 비해 작은 편이어서 신라가 고구려의 수막새를 모방한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당시 경주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유형이고 강릉에서는 통일기 이전 신라 수막새를 찾아볼 수 없다는 점에서 고구려 수막새로 판단된다(주홍규, 2024, 6쪽).

연천	당포성	강안 평지성	450	석축	임진강유역 / 토심석축(수직기동흙, 돌구멍) / 기와, 토기 출토(기와건물지 추정) / 행정관청
연천	무등리1보루	산정식 산성	200	석축	임진강유역 / 토심석축 / 방사성탄소연대: 6세기 후반 기와(착고 등), 토기, 철기 등 출토 / 행정관청
연천	무등리2보루	산정식 산성	350	석축	임진강유역 / 토심석축 / 치2, 축대, 건물지, 곡물 창고, 정련단야 / 갑옷 1식(투구, 상의), 망태형철기2, 탄화곡물(쌀, 조), 철제 슬래그 등 출토 / 군수기지?
연천	고성산보루	미상	30	석축	임진강유역 / 원형 석축 (용도 불명)
파주	덕진산성	산정식 산성		석축	임진강유역 / 내성 구간에서 고구려 석축 성벽 확인
양주	태봉산보루	산정식 산성	143	석축	양주분지 / 토심석축 / 치2, 온돌건물지, 집수시설 갑옷(투구, 찰갑편), 연가, 토기, 철기 등 출토
양주	천보산2보루	산정식 산성	106	석축	양주분지 / 토심석축 / 치1, 굴림주건물지, 온돌건물지, 집수시설 등 / 토제북, 토기, 철기 등 출토
양주	독바위보루	산정식 산성	458	석축	양주분지 / 남봉우리(고구려 점유)와 북봉우리로 구성 백제-고구려-신라 점유 양상 확인
서울	배봉산보루	산정식 산성	108	석축	한강유역 / 토심석축
서울	용마산2보루	산정식 산성	150	석축	한강유역 / 토심석축 / 치3, 온돌건물지, 집수시설, 저장시설, 나무사다리 / 토기, 철기 등 출토
서울	흥련봉1보루	산정식 산성	145	석축	한강유역 / 토심석축 / 겹성벽, 치1, 기와건물지, 온돌건물지, 집수시설 / 연화문와당 및 기와, 토기, 철기 / 행정관청
서울	흥련봉2보루	산정식 산성	205	석축	한강유역 / 토심석축 / 겹성벽, 외항, 출입시설, 치7, 온돌건물지, 계단시설, 집수시설, 저장시설, 집수정, 소성시설? / 명문토기(庚子?, 官瓮 등), 토기, 철기(기대) / 군수기지?
서울	구의동보루	산정식 산성	46	석축	한강유역 / 1보루와 2보루로 구성? / 화재 폐기 치4, 온돌건물지1, 집수시설 / 토기, 철기, 벽돌 등 출토
서울	아차산3보루	산정식 산성	420	석축	한강유역 / 토심석축 / 출입시설, 온돌건물지, 계단시설, 저장시설, 방아시설, 단야유구 등 / 토기, 철기 등 출토
구리	아차산4보루	산정식 산성	256	석축	한강유역 / 토심석축 / 치5, 온돌건물지, 집수시설, 간이대장간시설 등 / 명문토기(冉牟兄, 支都兄, 後部都兄, 下官), 갑옷(투구, 찰갑편), 토기, 철기 등
구리	시루봉보루	산정식 산성	260	석축	한강유역 / 토심석축 / 치4, 외항, 온돌건물지, 집수시설, 집수정 등 / 명문토기(大夫井大夫井 등), 토기, 철기 등
서울	몽촌토성	평지구 릉성	2,700	토축	한강유역 / 백제 왕성 재이용 / 온돌건물지, 도로, 집수시설(목곽고) 등 / 토기(사이장경옹 등), 철기, 목기 / 고구려 남진사령부?
안성	도기동산성	포곡식 산성		목책	안성천유역 / 백제 토성을 목책(토심석축)으로 개축 / 목책이 산성 아래 마을까지 연결 / 치, 온돌건물지, 목곽고, 집수지, 배수시설 등 / 토기, 철기 등 출토
세종	남성골산성	포곡식 산성	700?	목책	금강유역 / 2중 목책 / 치, 외항, 온돌건물지, 목곽고 등 / 금제귀걸이, 토기(벼루 등), 철기 등 출토
대전	월평동산성	미상		목책	금강유역(갑천) / 백제 유적을 목책(토심석축?)으로 개축 / 산성 아래에도 고구려 유구(월평동유적) 확인: 도기동산성과 유사 구조 / 토기 등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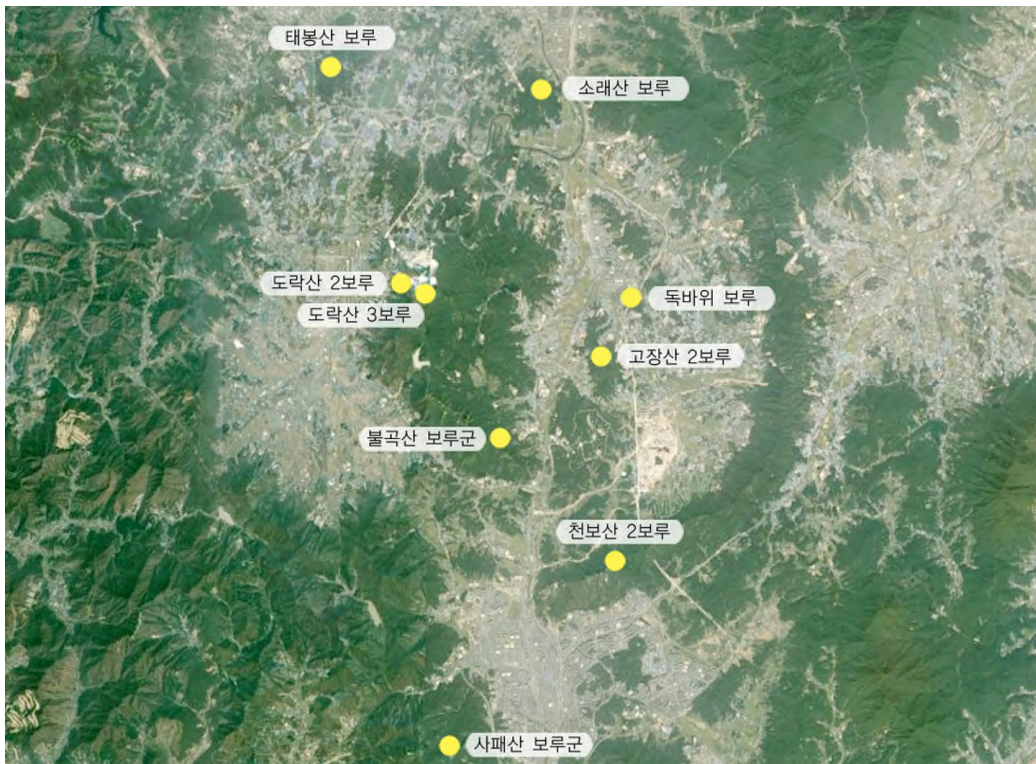
[그림 4] 한탄·임진강 지역의 주요 고구려 유적 분포 현황(구글어스)



[그림 5] 한탄·임진강 지역의 고구려 성곽

한탄·임진강 유역 일대의 고구려 성곽은 동-서로 배치되어 있다. 이러한 양상은 강을 따라 수직단애가 발달한 연천 및 파주 지역의 지형적 특징과도 깊은 관련이 있다. 용암 분출로 이 일대에 용암대지가 형성된 이후 현무암과 기반암의 경계부 또는 주상절리가 잘 발달한 연약대가 집중적으로 하천의 침식작용을 받아 한탄강과 임진강에는 북안을 중심으로 수십 km 구간에 걸쳐 높이 10~15m의 현무암 수직절벽이 형성되어 있다. 이처럼 동-서로 길게 이어지는 수직절벽은 일부 지점을 제외하면 횡단이 불가능하여 천연 장벽의 역할을 하게 된다. 고구려 군대는 한탄·임진강 유역의 이러한 지형적 특징을 이용하여 강이 곡류하여 물살의 흐름이 늦어져 도강이 가능한 여울목이 있는 북안에 성을 축조함으로써 적의 북진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고자 하였다(양시은, 2013, 260쪽).

이들 지역의 고구려 성곽은 강안의 평지성과 비교적 낮은 봉우리에 위치한 보루로 구분이 가능하다. 강안평지성은 은대리성, 당포성, 호로그루로, 세 성 모두 강의 본류와 그 지류 하천 사이에 형성된 삼각형의 강안대지에 위치하여, 강안의 현무암 절벽 두 면을 제외한 나머지 한 면에만 성벽(목책, 토심석축)을 쌓았다. 보루 역시 강안평지성처럼 임진강 변을 따라 분포하는데, 비록 규모는 크지 않으나 적의 움직임을 관측하기 쉬운 곳에 성을 축조하였다.



[그림 6] 양주 분지의 고구려 성곽 분포(북천박물관·서울대학교박물관, 2012, 38쪽)

한편, 한탄·임진강 유역에서 백제의 한성이었던 서울로 진입하거나 반대로 서울에서 연천을 거쳐 개성으로 가기 위해서는 양주를 거쳐야만 한다. 산지로 둘러싸여 있는 양주 분지는 지형의 특징상 남북 방향의 교통로를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어 고구려는 평지의 교통로를 관측할 수 있는 전망 좋은 산봉우리에 보루를 축조하였다.

당초 양주 분지에는 28개소의 보루가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국립문화재연구소 2006). 천보산 5개소, 도락산 4개소, 불곡산 9개소를 포함하여 독바위보루, 고장산 1·2보루, 큰테미산보루, 작은테미산보루, 태봉산보루, 소래산보루, 사패산 1·2·3보루가 여기에 해당한다. 그렇지만 실제로 발굴조사를 통해 고구려가 축조한 곳으로 밝혀진 곳은 천보산 2보루와 태봉산보루이고, 독바위보루는 백제가 축조한 것을 고구려가 일시적으로 점유하였음이 확인되었다. 그리고 지표조사에서 고구려 토기가 수습된 곳은 발굴된 유적 외에 소래산보루, 도락산 2·3보루, 불곡산 2·5·9보루, 고장산 2보루, 천보산 5보루, 사패산 1보루 뿐이다.

양주 분지의 고구려 보루는 상대적으로 해발고도가 높은 봉우리에 축조된 경우가 많은데, 유물의 수습 양상이나 가시권역 분석(이정범, 2010)을 참고하면, 능선을 따라 축조된 이들 보루군 전체가 고구려 유적이라고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이제 양주에서 남쪽으로 내려오면 바로 백제의 한성이다. 한강 북안의 아차산 일원에는 각 봉우리마다 보루가 조성되어 있는데, 조사 결과 상당수가 고구려가 축조한 것임이 밝혀졌다. 아차산은 아차산 본 줄기를 중심으로 용마산과 망우산, 그리고 흥련봉과 시루봉 등의 주변 산지를 모두 포함하는 명칭이다. 아차산 동쪽의 왕숙천과 서쪽의 중랑천 유역은 동서로 가로막힌 지형적 장애물이 없어 예로부터 지금까지 동두천과 철원 방면을 오가는 주요 교통로였다. 또한 아차산 남쪽의 광나루는 한강을 통해 서해는 물론이고, 충청과 강원, 경상도로 향하는 교통로의 시발점이었다(최종택, 2013, 174쪽).

이처럼 주변에 높은 산이 없어 한강 이남과 인근 평야지대에 대한 감시가 용이한 아차산 보루군은 한강 이남에서 경기 북부 지역으로 북상하려는 적을 통제하기에 가장 적합한 곳이다. 강을 따라 고구려 성곽이 분포하고 있는 임진강 유역과는 달리 한강 유역은 아차산 일원에만 보루가 집중분포하고 있어 특징적이다. 각 보루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단순히 교통로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인 거점 보루가 아니라 일종의 중대형 성곽처럼 유기적으로 운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들 보루 중 대민(對民)업무를 수행하는 행정 관청은 기와 건물지가 있는 흥련봉 1보루에 설치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양시은, 2010, 122쪽).

한강 이남의 고구려 성곽은 안성천의 안성 도기동산성, 금강 유역의 청원(세종) 남성골산성과 월평동산성이 있는데, 모두 목책성이다. 이 밖에도 금강의 지류인 미호천에 있는 진천 대모산성에서도 고구려 토기가 수습된 바 있어 고구려 성곽일 가능성이 높다. 이들 성이 위치한 곳은 육로나 수로를 이용한 교통의 결절점에 해당한다. 서울에서 성남, 용인, 화성 지역을 따라 남하한 고구려는 안성 도기동산성과 진천 대모산성을 거쳐 차령산맥을 넘은 뒤 금강 유역의 남성골산성과 월평동산성 등에 성을 축조함으로써 백제의 웅진도성을 바로 외곽에서 압박한 것으로 보인다(최종택, 2021, 480~481쪽).



① 아차산 보루군(©최종택)

② 홍련봉 1보루(©고려대 고고환경연구소)

③ 홍련봉 2보루(©고려대 고고환경연구소)

④ 시루봉보루(©서울대학교박물관)

[그림 7] 아차산 고구려 보루군



① 안성 도기동산성

② 청원(세종) 남성골산성(©충북대학교박물관)

[그림 8] 한강 이남 지역의 고구려 성곽

## 2. 성벽의 구조적 특징

남한의 고구려 성곽은 체성벽의 축조 재료에 따라 목책성과 석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목책성은 연천 전곡리 목책유구와 호로그루 석축성벽 아래 2열의 목책 구조, 안성 도기동 산성, 청원(세종) 남성골산성, 대전 월평동산성에서 발견되었다. 목책은 기본적으로 말각장방형의 구덩이를 파고 직경 20~30cm 가량의 나무기둥을 1.5~2m 간격으로 열을 지워 세우는 구조로, 지형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3~4.5m 정도의 거리를 둔 2조의 목책열이 나란히 배치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내측 목책 중에는 보조 목주가 있는 경우도 있으며, 경사면에 위치한 경우에는 할석을 점토와 섞어 쌓는 습식쌓기 방식의 석축벽으로 외측 목책을 보강한 시술도 확인된다. 이들 석축벽은 불을 놓아 단단하게 굳혔는데, 이러한 양상은 무등리 2보루의 석축성벽에서도 발견된 바 있다(양시은, 2022, 124쪽).

그런데 2조의 목책열 외에는 상부 구조가 남아있지 않아 고구려 목책성의 구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명확하게 밝혀진 바 없다. 다만 목책과 관련된 성토층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목책열 사이의 내부 공간이 비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할 뿐이다.

이들 목책성을 제외한 남한 지역의 고구려 성곽은 모두 토심석축공법(土芯石築工法)<sup>6)</sup>으로 축조된 석성이다. 한탄·임진강 유역의 강안평지성을 제외하면 대체로 소규모의 산정식산성인 보루가 대부분이다. 고구려 석성은 켜기꼴 돌과 북꼴 돌을 서로 맞물리게 쌓아 견고하게 축조한 석축 성벽으로 널리 알려져 있으나, 이러한 축조공법은 주로 중대형 규모의 고구려 성에서 확인될 뿐 1~2겹으로 성벽을 쌓은 남한 지역의 보루에서는 찾아보기 어렵다.

남한 지역의 고구려 보루는 정상부를 둘러싸고 원형 또는 장타원형의 석축성벽을 쌓아 방어시설을 구축하였다. 석축성벽은 기본적으로 경사면을 정리한 다음 판축 공법에서 확인되는 방식과 유사하게 나무 기둥을 이용한 구조물을 가설하여 흙을 채워 토축부(뒷채움)를 조성한 후에 석축부를 조성하였다. 성벽은 주변에서 구하기 쉬운 화강암을 치석하여, 성돌을 1~2겹으로 얇게 쌓아 축조하였다. 일부 고구려 보루에서도 켜기형 성돌이 확인되지만, 마름모형 성돌을 맞물려 쌓는 방식은 아니며, 주로 장방형의 성돌을 이용하여 1~2겹으로 얇게 구축하였다.

얇은 토축부에 얇은 석축성벽을 쌓아 마감하는 방식인 토심석축공법은 돌과 흙의 재료 분리 현상으로 인한 성벽의 붕괴가능성이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구리 시루봉보루나 연천 무등리 2보루는 석축부와 토축부 사이, 성돌 사이의 빈공간을 점토로 채워 넣었음(습식쌓기)이 확인되었다. 특히 무등리 2보루에서는 석축성벽 바깥쪽에 두텁게 점토를 바른 후 불로 소결시켜서 성벽을 보강하였다.

이들 보루에서는 중대형 고구려 성곽의 기반부에서 확인되는 들여쌓기 방식은 거의 확인되지 않는다. 이로 인해 시루봉보루처럼 토축부의 토압으로 인해 얇은 석축성벽의 균형이 깨

6) 해당 공법은 얇은 석축부에도 불구하고 두꺼운 토축부의 압력을 견뎌내고 성벽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심광주, 2019, 158쪽). 성벽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것은 토축부이고, 석축부는 외벽 경사를 유지하며 빗물에 의해 성벽이 침식되는 것을 막아준다. 토축부에는 일정한 간격으로 나무 기둥을 박아 응력(應力)을 견디게 하였다. 과거에는 이러한 목주의 흔적을 목책으로 잘못 인식하기도 하였다.

지거나 완전히 무너지는 경우도 발생한다. 성돌의 치석 상태나 성벽의 얇은 석축부로 볼 때 성벽을 높이 쌓고 유지하는 것이 수월하지는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산 정상부의 평탄면 높이에 맞춰 성벽을 축조한 것으로 보인다. 보루에서는 중대형의 성곽과는 달리 여장(女牆)과 같은 시설은 확인되지 않는다. 성벽 안쪽 토축부(뒷채움층)의 상면에는 건물지를 구축하였는데, 토심석축공법의 특성상 상대적으로 넓은 토축부는 산 정상부의 부족한 생활면을 확장하는 역할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양시은, 2020, 52쪽).

연천 호로고루, 당포성, 서울 흥련봉 1보루와 2보루의 성벽에는 방형의 수직기둥홈도 발견되었다. 호로고루에서는 바깥 성벽으로부터 안쪽으로 1.2m 가량 들어온 지점에서 확인되었다. 수직기둥홈의 간격은 2.15m 가량으로, 성벽의 기초부까지 연결된다. 당포성에서는 기둥홈 하단부에서 돌확도 발견된 바 있어 수직기둥홈은 축성과정에서 나무기둥을 세우기 위한 보조 구조물로 판단된다. 흥련봉 보루에서는 겹성벽의 안쪽 성벽의 끝면에서 기둥홈이 확인되었는데, 그 간격은 1.5m 가량이다(양시은, 2013, 206-207쪽).

성벽에는 방형의 치(雉)도 확인되는데, 내부가 돌로 채워진 것과 흙으로 채워진 것으로 구분된다. 치가 부착된 성벽 일대는 보존상태가 비교적 양호한데, 이는 치가 방어적인 목적 외에도 체성벽을 지지하는 보축의 기능을 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통상적인 치는 방형의 단일 구조물이지만, 아차산 보루군에서는 출입을 위한 특이한 구조의 치도 확인되었다.

이 밖에도 시루봉보루와 흥련봉 2보루에서는 성 바깥에서 적이 쉽게 접근할 수 없도록 한 외황(外隍) 시설도 발견되었다.

#### IV. 강원 지역 고구려 성곽의 존재 가능성 검토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고구려는 광개토왕 대인 4세기 말 대대적인 백제 정벌과 이후 신라를 구원하기 위해 기병과 보병 5만을 경주로 내려보내는 과정에서 북한강 유역으로 진출한 이후 5세기 중후반에는 남한강 유역까지 차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2장에서 살펴본 춘천, 홍천, 원주 등에 분포하고 있는 고구려 석실분과 생활유적 외에도 충주고구려비와 충주 일원의 고구려 석실분 등을 통해서도 입증되고 있다.

강원 영서 지역은 험준한 산간지대로서 상대적으로 교통이 불편하여, 육상 교통망보다는 북한강과 남한강을 이용한 수상 교통망이 발달하였다. 북한강의 경우 춘천까지 상시 운항이 가능했고, 우기에는 화천(본류)과 양구(소양강)까지 항행할 수 있었다. 홍천강도 홍천까지 상시 운항이 가능했다. 남한강은 단양까지 상시 운항이 가능했고, 우기에는 영월까지도 항행할 수 있었다. 이처럼 춘천-홍천-단양은 영서 지역을 남북으로 관통하는 교통로가 지나는 주요 거점으로, 고구려 역시 이를 적극 활용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와 관련하여 고구려가 한강변에 남평양(南平壤, 서울)과 국원성(國原城, 충주) 등의 평지거점을 조영한 것 역시 한강 수

로를 활용해 지방지배를 도모하기 위함이었다고 본 여호규(2020b, 254~255쪽)의 견해가 주목된다. 그는 이러한 점에서 북한강 수계의 중심지로 고구려 고분이 다수 조사된 춘천이나 본래 고구려의 평원군(平原郡)으로 신라의 북원경(北原京)이 설치되었던 원주 등에도 평지 거점을 구축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다. 고구려가 한강 유역 각지에서 수취한 세곡(稅穀)을 한강 수로를 이용해 평지거점에 집하(集荷)한 다음, 일부는 이 지역의 지방지배나 군사방어에 사용하고, 나머지는 평양 도성으로 운송했을 것으로 본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강원도 특히 영서 지역에도 주요 교통로에는 고구려 성곽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 강원도에서는 100여 개의 성곽 유적이 분포하고 있으나 시굴 및 발굴 조사가 이루어진 것은 소수에 불과하다. 아직 발굴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유적을 살펴보는 것은 향후 오류가 발생할 여지도 있으나, 그럼에도 고구려 성곽의 존재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우선, 철원 성모루토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한국고고학전문사전-성곽·봉수편』에 따르면, 성모루토성은 한탄강이 U자로 곡류하면서 만든 설상대지(舌狀臺地)의 북쪽 대지를 가로막아 축조한 강안평지성이다. 북벽은 기저부 너비는 약 20m이고, 잔존 높이는 4.4m 가량이다. 동·서·남벽은 높이 20m 내외의 한탄강 현무암 자연절벽을 그대로 활용하였다. 성 내부에서는 중도석무문토기와 타날문토기 등 원삼국시대 유물이 수습되었다.<sup>7)</sup>

토기의 수습 양상만을 놓고 보면 마한~백제 시기의 토성이었을 가능성도 있지만, 성곽이 강 북쪽에 위치한다는 점과 토축 성벽의 한쪽 면에 부정형 할석재가 덮여 있는 구조라는 점에서 한탄강 유역의 연천 은대리성과 유사한 입지와 성벽 축조 방식을 보이므로 고구려 성곽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토성은 현재 경작지로 사용되고 있고, 북벽 일부가 도로로 인해 절단된 상태이므로, 추가 조사를 통해 그 성격을 명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



① 북벽(©한국학중앙연구원)

② 위성사진(©구글어스)

[그림 9] 철원 성모루토성

7) 디지털철원문화대전, <https://cheorwon.grandculture.net/cheorwon/toc/GC07800539>

다음은 횡성 갈풍리산성에 대해 검토하겠다. 산성은 산 정상부(해발 250m)를 중심으로 주변 능선을 감싸고 쌓은 둘레 698m 가량의 포곡식 석축산성으로, 동쪽 계곡부(해발 200m)가 가장 낮다. 성벽은 판석재를 이용하여 바른층쌓기 하였으며, 주로 내탁식으로 쌓았으나 일부 구간은 협축식으로 쌓았다. 서벽 일대가 가장 잘 남아있고, 나머지 구간의 성벽은 상당부분 훼손 및 멸실되었다. 지표조사에서 수습된 유물은 주로 고려 및 조선시대에 해당되는 것으로, 토기 및 자기편, 어골문과 격자문이 타날된 기와편들이다(강원역사문화연구원, 2024).

산성의 동남쪽으로는 섬강이 서쪽으로 흘러 남한강에 합류하며, 북서쪽 배후에는 해발 400~600m 내외의 산지가 연속되어 있다. 산성은 춘천-홍천에서 원주로 향하는 주요 길목이면서, 서로 양평을 거쳐 남한강을 따라 서울로, 동으로는 대관령을 넘어 강릉으로 향한다. 갈풍리에는 고려~조선시대의 역참<sup>8)</sup>이 설치되어 있었을 만큼, 교통의 요충지이다. 갈풍리산성에서는 횡성읍 전역을 가시권역으로 두고 있으므로, 횡성 지역에 대한 통제 외에도 춘천-원주 간 이동이나 서울-강릉 간 이동을 통제하기 위해 산성이 축조된 것으로 보인다.



[그림 10] 횡성 갈풍리산성의 서성벽(강원역사문화연구원, 2024, 44쪽)과 가시권역

다만, 갈풍리산성의 성벽은 고구려의 것과는 차이가 있으며 오히려 통일기 신라가 축조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물론 지표조사에서도 고구려 성곽으로 추정될 만한 고고학적인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고대 영서 지역 교통의 요충지였던 횡성 일대를 조망할 수 있고, 남한강 분류와 연결되는 섬강변에 입지하고 있다는 점은 의미가 있다.

장수왕 대 전반기에 북한강 수계를 따라 내려온 고구려 군은 횡성을 거쳐 평창, 영월, 정선 등 남한강 상류 방면으로 진출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또한 고구려가 남한강 유역의 충주를 차지한 이후에는 춘천-홍천-횡성-원주-충주가 긴밀하게 연결되었다. 물론 이러한 교통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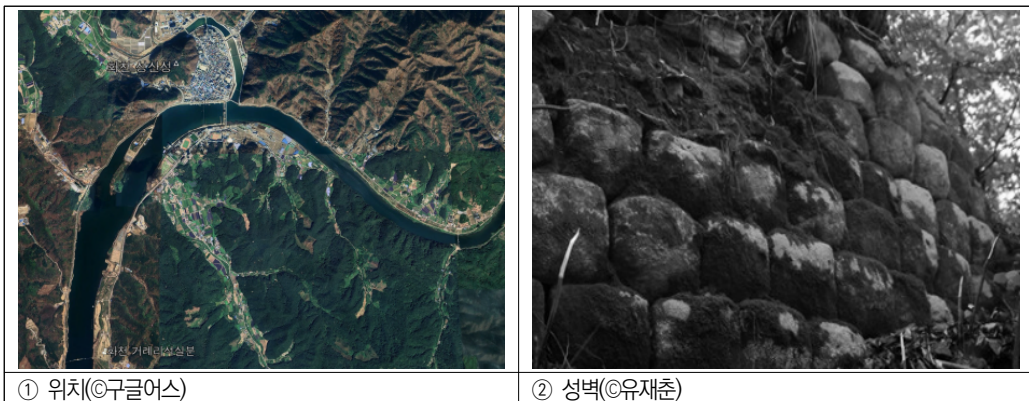
8) 갈풍역(葛豐驛)은 고려시대에는 춘추도(春秋道)에 속한 24개의 속역 중 하나였고, 조선시대에는 보안도(保安道)를 구성하는 속역이었다.

는 6세기 중반 이후에는 신라의 북진로로 이용되었기 때문에, 추가 조사를 통해 산성의 축조 및 운영 시기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는 화천 성산성에 대해 검토하도록 하겠다. 『한국고고학전문사전-성곽·봉수편』에 따르면, 성산성은 전체 둘레가 696m인 산상포곡식 석축산성이다. 북쪽과 서쪽이 비교적 높고 남쪽과 동쪽이 낮다. 산성은 북한강 북안에 위치하며, 성에서는 화천읍 전체가 조망된다.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동국여지(東國輿地志)』, 『여지도서(輿地圖書)』 등 조선 시대 여러 지리지에 산성에 대한 간단한 기록이 존재하며, 삼국시대에서 조선시대에 해당하는 유물이 수습되었다.

성산성은 모서리 부분이 둥글게 치석된 성돌로 성벽을 축조하였고, 북한강 본류 북안에 위치한다는 점에서 고구려 성곽일 가능성이 제기되었다(유재춘, 2021, 155쪽). 물론 해당 성곽을 삭주 소속 낭천군에 해당하는 신라 성곽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박성현, 2010, 264쪽). 화천은 『삼국사기』 지리지에 따르면, 본래 고구려 성천군(狝川郡)인데, 신라 경덕왕이 낭천군(浪川郡)으로 이름을 고쳤다고 한다. 성천군은 야시매(也尸買)로도 일컬었다고 하는데, 낭천군으로 고치기 이전에 이미 성천이라는 지명이 확인된다는 점에서 오류일 가능성도 있다.

화천 성산성은 춘천에서 북한강 본류를 따라 북상하면 화천읍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곳에 입지하고 있고, 형성과 마찬가지로 통일신라의 삭주에 해당하는 곳으로서 그 입지가 횡성 갈풍리산성과 매우 유사하다. 북한강 및 화천-춘천을 지나가는 교통로를 통제하기 위해 축조된 성곽으로 판단된다. 강 건너편에는 화천 거례리석실분이 위치한다. 화천 성산성은 주변의 신라 성곽과 다르게 비교적 둥글게 치석된 성돌이 사용되었다는 점에서 고구려가 축조하였을 수도 있지만, 성곽의 구조나 위치 등을 볼 때 통일신라의 산성일 가능성이 크므로 갈풍리산성과 마찬가지로 시굴조사를 통한 축성 및 운영 시기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



[그림 11] 화천 성산성

이 밖에도 신광철(2015)은 기존에 강원 지역 고구려 성곽으로 그 가능성이 언급된 바 있는

영월의 태화산성과 정양산성, 정선의 고성리산성과 송계리산성을 고고학적으로 검토하였다. 필자 또한 이들 산성의 경우 성벽의 축조 기법이나 출토 유물에서 고구려와의 관련성이 전혀 확인되지 않으므로 고구려 성곽으로 보기 어렵다는 견해에 동의하는 바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강원 지역에서는 한탄강 유역의 철원 성모루토성을 제외하면 현재까지는 고구려 성곽의 존재 가능성을 언급하기 어렵다. 성모루토성은 강원 지역의 고구려 진출과 관련하여 주로 논의되는 영서 지역은 아니어서 그간 학계의 주목을 받지 못하였다.

이 밖에도 화천 성산성의 경우에는 성돌이 둥글게 치석되었고 북한강 북안이라는 점에서 교통로 통제를 위한 축조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나, 고구려가 아닌 통일신라시대 성곽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는 횡성 갈풍리산성 또한 마찬가지이다.

남한 지역에서 현재까지 발견된 고구려 성곽의 분포 현황 및 그 특징, 그리고 역사적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강원 지역에서 다수의 고구려 성곽이 발견될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다고 생각된다. 그럼에도 고구려 석실분을 비롯한 고구려 유적이 분포하고 있고, 백제나 신라 등의 성곽을 고구려가 재점유하고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우므로, 향후 지속적인 관심과 조사가 필요하다.

## V. 맺음말

이상으로 본 고에서는 강원 지역 고구려 성곽의 존재 가능성을 살펴보았다. 주지하다시피 고구려는 광개토왕 대인 4세기 말 대대적인 백제 정벌과 이후 신라를 구원하기 위해 기병과 보병 5만을 경주로 내려보내는 과정에서 북한강 유역으로 진출하였다. 그리고 5세기 중반 이후 장수왕 대에는 남한강 유역까지 차지하였는데, 이는 춘천, 홍천, 원주 등에 분포하고 있는 고구려 석실분과 생활유적 그리고 충주고구려비와 충주 일원의 고구려 석실분 등을 통해서도 입증된다.

남한 지역에서 발굴조사를 통해 고구려 성곽으로 밝혀진 것은 20개소가 약간 넘는데, 이들 성곽은 경기와 서울, 충청 지역에서만 확인되었다. 그렇지만 『삼국사기』 지리지에는 강원 지역에도 고구려의 군현이 있었던 것으로 전하고 있고, 석실분 등을 비롯한 고구려 유적이 분포하고 있을 뿐 아니라 고모루성 수사 등 고구려 지방관이 파견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므로, 강원 지역에서도 고구려 성곽의 존재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강원도에는 100여 개소의 성곽이 분포하고 있으나 발굴조사가 이루어진 유적은 극히 드물다. 이들 성곽 중 유적의 위치나 입지, 성벽의 구조 등으로 볼 때 현재 가능성이 가장 큰 것은 한탄강 유역의 철원 성모루토성이다. 북한강 북안에 위치한 화천 성산성의 경우에는 둥글게 치석된 성돌로 인해 고구려가 축조하였을 것으로 보기도 하지만,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을

때는 통일신라시대 산성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는 횡성 갈풍리산성도 마찬가지이다.

남한 지역에서 현재까지 발견된 고구려 성곽의 분포 현황 및 특징, 그리고 역사적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강원 지역에서는 다수의 고구려 성곽이 발견될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다고 판단된다. 그럼에도 고구려 성곽의 존재 가능성은 있으므로, 향후 지속적인 관심과 발굴조사를 통한 실제 확인이 필수적이라 하겠다.

【참고문헌】

- 강원역사문화연구원, 2024, 『횡성 갈풍리산성 학술지표조사 보고서』.
- 국립문화재연구소, 2006, 『남한의 고구려유적』.
- 국립문화재연구원, 2022, 『파주 육계토성 발굴조사』 학술자문회의 자료집.
- 박성현, 2010, 「新羅의 據點城 축조와 지방 제도의 정비 과정」,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서영일, 2006, 「고구려의 백제공격로 고찰」, 『사학지』38.
- 신광철, 2015, 「고구려의 강원도 진출과 의의」, 『한국상고사학보』88.
- 심광주, 2019, 「삼국과 통일신라의 성곽 축조 기술」, 『한국 전통시대의 토목문명』, 들녘.
- 양시은, 2010, 「남한 내 고구려 성곽의 구조와 성격」, 『고구려발해연구』36.
- 양시은, 2013, 「高句麗 城 研究」,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양시은, 2014, 「남한지역 출토 고구려 토기의 현황과 특징」, 『호남고고학보』46.
- 양시은, 2020, 「한강유역 고구려 보루의 조사 성과와 연구 쟁점」, 『고고학』19-2.
- 양시은, 2022, 「고구려 성곽의 축조기법」, 『성곽을 통해 본 고대 토목기술의 발전과 전개』, 2022 백제왕도핵심유적 학술대회 발표집.
- 양시은, 2023, 「고구려의 한강유역 진출과 경영」, 『고고학지』29.
- 양시은, 2025, 「남한지역 고구려 성곽, 강원지역 가능성」, 『강원의 고구려 산성, 그 가능성을 보다』, 제15회 강원학포럼 발표집, 강원역사문화연구원·강원학연구원.
- 여호규, 2012, 「4세기 후반~5세기 초엽 고구려와 백제의 국경 변천」, 『역사와 현실』84.
- 여호규, 2020a, 「충주고구려비의 단락구성과 건립시기」, 『한국고대사연구』98.
- 여호규, 2020b, 「고구려의 韓半島 中部地域 지배와 漢城 別都의 건설」, 『한국고대사연구』99.
- 유재춘, 2021, 「강원지역 성곽유적의 성격에 대한 연구」, 『인문과학연구』68.
- 윤경오 외, 1996, 「갈풍리산성」, 『박물관지』, 강원대학교박물관.
- 이정범, 2010, 「감시권역 분석을 통해본 경기북부지역 보루의 사용주체와 기능」, 『고구려발해연구』37.
- 주홍규, 2024, 「기와로 본 6세기 동해안 연안 지역 일대의 고구려 지역 거점과 상실」, 『동양학』97.
- 정수욱, 2024, 「토기를 통해서 본 파주 육계토성의 역사적 의미」, 『파주 육계토성 위상 재정립을 위한 심포지엄』, 국립문화유산연구원.
- 최종택, 2011, 「南韓地域 高句麗古墳의 構造特徵과 歷史的 意味」, 『한국고고학보』81.
- 최종택, 2013, 『아차산 보루와 고구려 남진경영』, 서경출판사.
- 최종택, 2021, 「남한의 고구려 유적」, 『고구려 고고 - 유적편』, 고구려통사 8, 동북아역사재단.
- 한성백제박물관·서울대학교박물관, 2012, 『고구려, 한반도를 품다』.

**【Abstract】**

## An Examination of the Possibility of Koguryo Fortresses in the Gangwon Province

Yang, Si-eun

(Professor,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investigates the potential existence of Koguryo fortresses in Gangwon Province, focusing on the kingdom's southward expansion and military campaigns during the late fourth and fifth centuries. In the late fourth century, under the reign of King Gwanggaeto, Koguryo launched a major offensive against Baekje, reportedly seizing 58 fortresses and 700 villages. In 400 CE, Koguryo dispatched an army of 50,000 troops to Gyeongju to aid Silla against external threats. These military endeavors enabled Koguryo to extend its influence into the Bukhan River basin, and by the mid-fifth century, during King Jangsu's reign, into the Namhan River basin. Archaeological evidence—including stone-chamber tombs and settlement remains in Chuncheon, Hongcheon, and Wonju, as well as the Chungju Koguryo Stele—supports this historical expansion.

Although over 100 fortress sites have been identified in Gangwon Province, only a few have been excavated to the extent that their builders can be confirmed. Nonetheless, historical sources such as the *Sanguk Sagi* record the presence of Koguryo administrative units in the region, indicating the possible existence of fortresses. Among the candidate sites, the Seongmoru Earthen Fortress in Cheorwon, located along the Hantan River, exhibits structural and locational features consistent with known Koguryo fortresses.

Given the distribution patterns, construction techniques, and historical context of Koguryo fortifications in southern Korea, the likelihood of numerous fortresses being discovered in Gangwon Province appears limited. However, the possibility remains meaningful, and continued archaeological investigation is essential to ascertain their presence and better understand their historical significance.

<b>Keywords</b> : Koguryo, Fortress, Mountain fortress, Gangwon Province, Seongmoru Earthen Fortress
--